

# ELS 부실과 금융당국의 책임



이정혁  
西村브리핑

사모펀드에 이어 홍콩 H지수 ELS(추가 연계증권) 사태까지 터지면서 금융감독국이 금융회사의 고객 배상 책임을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결국 금융감독국의 압박에 못이겨 KB국민·신한·하나·NH농협과 SC제일은행이 이번 주 잇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H지수 ELS 손실 자율 배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면 은행권은 당장 다음 달부터 H지수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율 배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문제는 금융감독국의 ELS 배상 책임 해결 수단이 사모펀드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국이 이번에도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사실 사모펀드는 부실운용과 사기 운용이 문제였다. 여기에 금융감독국이 판매사는 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독 규정을 고집하면서 부실과 사기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도 주요 원인이다. 그런데 금융감독국은 판매사가

모니터링도 못하게 막아 놓은 자신들의 책임은 숨기고 운용사에게 사기를 당한 애꿎은 판매사들한테만 피해 보상을 하라고 종용했다. 판매사와 판매 직원에게 증빙계를 내리고, 수조원을 배상하게 했다. 희대의 코미디이자 판치금융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ELS는 어떻게? ELS는 보통 6개월내 조기상환이 되면 약속된 금리를 받지만, 6개월내 상황이 안되면 만기까지 보유하다가 결국에는 손실 볼 확률이 커진다. 여러 지수나 종목을 활용해 구조화한 파생상품인데,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위험 대비 지나치게 낮다. '초고위험 저수익' 상품인 셈이다. 리스크와 리턴의 균형이 처음부터 맞지 않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정성을 추구하는 은행 고객 성향에 맞는 상품이 아니고 더더욱 고객에게 크게 도움도 되지 않는다.

위험은 매우 크고 수익은 작기 때문에, 대신 등 일부 증권사는 오래 전부터 ELS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품이란 이유다. 최근에는 분식에 취약한 홍콩 H지수 문제가 겹쳤으니 손실이 더 커진 것이다. 금융감독국이 주목했어야 하고, 감독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 13일 이복현 원장은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런 면피성 사과는 커다란 재산상 손실을 본 고객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상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이런 상품을 팔게 하면 안됐다. 무지의 책임은 뒤로 하고, 이번에도 금융감독국은 적합성과 적정성 설명 의무 등을 지켰는지를 따지며, 금융회사들에 대해 징계 방향이를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상품을 판다는 것은 리스크를 파는 것이다. ELS 사태 책임의 근간은 금융 상품 판매 원칙을 지켰는지 여부다 아니다. 팔지 않았어야 할 상품을 팔았다는 것이다. 리스크 대비 리턴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품을 인가해 준 금융감독국과 수익에 눈이 멀어 부실 상품인줄도 모르고 예금하러 온 고객에게 ELS를 팔게 한 금융회사 경영진 모두 우선적으로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감독국은 운용사와 판매 직원들에게만 징계를 내리는 어이없는 짓을 제발 멈춰야 한다. 이것보다는 ELS 등 파생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는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ljin@metroseoul.co.kr

## 국민의 선택



박정익  
정치경제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등 전국적으로 총 345명의 공직자를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선거 로고송이 울려 퍼지고, 후보자들과 선거 운동원들은 유권자들을 향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 분위기도 점점 가열될 전망이다.

오롯이 국민을 위해 일할 국민의 대표

를 뽑는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비롯해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팍팍하게 만들어 민생현안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조국 심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각각 첫 공식 선거운동 일성이라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양당 대표의 이러한 선거 유세 지원 방향은 지역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네거티브(부정적인) 선거 유세는 각 당의 후보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인해 선거 후에는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고소·고발은 시작됐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등의 혐의로 맞고발한 상황이다.

정책선거, 민생선거를 해야 할 선거가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져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키는 셈이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남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정치권과 후보자 간 고소·고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회의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이제 부터라도 국민을 위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pathfinder@

오늘의 운세 3월 29일 (음 2월 2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조상 땅에서 회소식이 온다. 48년생 오래전 친구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온다. 60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72년생 뒷사람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84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수 없다.



37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49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은 것은 조상님 사랑. 61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73년생 작은 먼지로도 눈이 아플 수 있다. 85년생 호랑이에 물려가도 말은 바로 하자.



38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들어오는 날. 50년생 기다리던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62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74년생 사주나 관상이 심상만 못하다 했으니. 86년생 감자밭에서 바늘 찾기 않도록.



39년생 말로 말을 이기는 것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51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으나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63년생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귀인이 온다. 75년생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87년생 좋은 말도 세 번 들으면 싫다.



40년생 세상만사 새옹지마니 일희일비는 금물. 52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허전하다. 64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오는 법. 76년생 어제의 바람이 태풍이 되어 돌아온다. 88년생 아내 말은 팔로 메주를 쏘내도 듣는다.



41년생 머리가 맑고 상쾌한 날. 53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65년생 지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77년생 자기만 생각하면 주변 질서가 깨진다. 89년생 가족 모임에서 도토리처럼 찬밥.



42년생 자식의 말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54년생 붉은색 옷이 행운을 가져오니 기본 전환이 된다. 66년생 모난 돌이 정 맞으니 까다롭기보다는. 78년생 우물에서 송농 찾지 말고 순서대로. 90년생 같은 값이면 금가락지 낀 손에 맞으라.



43년생 피곤한 날이니 외출을 자제. 55년생 밤이 깊다고 새벽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67년생 내뱀에 음주하고 운전하지 마라. 79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데. 91년생 굶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44년생 나이 들어가면서 후천운의 재물이 평탄하다. 56년생 평소 해오던 저축이 아군 역할을 하니 든든하다. 68년생 계획이 이루어진다. 80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내가 머무를 곳은 없다. 92년생 이제 배운 도박이 날 새는 줄 모르니.



45년생 모임에서 무장된 우리가 있으니 말조심. 57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일이 잘 풀린다. 69년생 가족의 협조를 얻어 고인 매듭을 풀어나가자. 81년생 늑이면 팔시를 받으니 젊어서 열심히. 93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음.



46년생 나의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즐겁다. 58년생 추사 김정희를 그리며 그림에 관심을 갖는다. 70년생 물도 조심해서 마셔야 한다. 82년생 직장에서는 눈 밖에 나서 신임 잃지 않도록. 94년생 한번을 참으면 만사가 편안해진다.



47년생 기다림에 지쳐 목이 아프다. 59년생 행운이 손짓하는 날이니 과감한 선택도 무방하다. 71년생 일이 미뤄져도 기다리면 오후 좋은 일이 있다. 83년생 꽃이 피었는 데 내 마음은 겨울. 95년생 복이 바란다고 해서 뚝 떨어지는 것이겠는가.



## 김상회의四季 인연 손절

사람을 얻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이라 말이 있듯이 좋은 인연은 황금을 얻는 것보다 귀한 일이다. 살아가다 보면 가장 힘들고 피곤한 것이 인간관계이기도 하다. 성격에 따라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들도 있고 친해지기 전까지는 자기 속내를 잘 내비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은 혼자라 하지만 현대사회는 군중 속의 고독이 일반화된 것 같기도 하고 아예 히키코모리라 하여 자기 방에 틀어박혀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들 과도 교류를 단절하고 사는 이들도 많아진 시대다. 자신과 통하는 진실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좋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영국의 진화심리학자인 로빈 던바는 소위 '절친'이라 할 수 있는 친구가 5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더 나아가 절친까지는 아니더라도 친한 친구 15명 좋은 친구 50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절친이 5명이 있다면 이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세대는 좋은 친구를 좋은 인연을 맺는 일보다 나에게 감정적 재물적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손절하는 것을 강조한다. 하도 속이고 상처 주는 일들이 많다 보니 이해가 가기도 한다. 인연 손절의 이유는 다양하리라. 나를 뒤에서 험담하거나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받는 것에 익숙하고 자기 것 베푸는 데는 인색한 사람 등등. 필자는 다른 건 몰라도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것에 둔다. 시간 약속을 사소하게 알고 쉽게 그 약속을 번복하는 사람들 말이다. 불가피한 일로 인해 늦거나 약속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시간에 늦고 약속을 했다가도 감정 기록에 따라 변덕을 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들이 운의 기운이 좋게 풀리지 않음도 물론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경학원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와 알파벳을 추가해서요  
http://www.argo9.com

QR 코드

할인도서

2	3		5	6		7	8
6		2	7				5
				5		6	
9		7					1
3							6
	4				7		9
	2		8				
4				2	1		7
7	6		4	8			2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9				3			2
		1		2	6	9	
	8	6				5	3
4	6		3		2		
	1						2
			4		8		9
	9	3				2	1
		2	5	3		1	
5			2				3

**결합형스도쿠110**

중고난도 110

1	2	9	6	8	7	5	9	2
2	8	1	2	9	5	6	8	7
7	5	9	2	6	8	9	2	1
6	8	9	2	1	2	9	7	9
9	6	2	8	7	9	1	2	5
5	1	8	7	2	9	2	9	6
2	9	5	9	2	6	7	1	8
9	7	6	1	5	2	2	8	9
8	2	4	9	5	1	6	5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0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50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